

# ‘잠 못 드는 밤’ EPL 개막... 손흥민 2년 연속 득점왕 도전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골든 부트'(득점왕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2023시즌 9개월 대장정

토트넘 내일 오후 11시 킥오프

손흥민, 홀란·살라 등과 경쟁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이 2년 연속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도전한다.

EPL의 2022-2023시즌이 오는 6일(이하 한국 시간) 오전 4시 리그 개막전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의 경기를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내 축구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홉스퍼는 6일 오후 11시 홈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새 시즌 개막전 킥오프에 나선다.

◇‘손세이셔널’ 손흥민, 두 시즌 연속 득점왕 ‘도전’

손흥민은 시즌 막판 득점포를 연사하며 23골을 작성, 무함마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신화’를 썼다.

한국인으로는 물론 아시아인으로서도 역대 처음으로 ‘유럽 빅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골든 부트’를 거머쥐었다.

손흥민의 득점력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도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본 토트넘은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하며 2022-2023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행 출전권을 따냈다.

새 시즌 손흥민은 2년 연속 득점왕 등극에 도전한다.

득점포 예열은 순조롭게 마쳤다. 한국에서 가진 2경기를 포함해 프리시즌 4경기에서 2골을 넣고 3도움을 곁들였다. 3도움 모두 ‘단짜’ 해리 케인의 득점으로 연결됐다.

EPL 통산 최다 합작골(41골) 기록을 보유한 EPL 역대 최고의 ‘공격 콤비’ 손흥민과 케인이 이 기록을 어디까지 늘리지도 새 시즌 관심거리다.

다만, 손흥민의 득점왕 등극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살라와 케인이 견재한 데다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 다윈 누네스(리버풀), 독일 분데스리가를 정복한 ‘괴물’ 알리 홀란(맨체스터 시티) 등 새 골잡이들이 경쟁에 가세해서다.

◇어름 이적시장 ‘알짜 보강’ 토트넘...4강 이상을 노린다

어느 때보다 알차게 전력을 보강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에도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적시장마다 ‘잔물 행보’를 보여 팬들의 지탄을 받던 토트넘은 베테랑 측면 수비수 이반 페리시치, 브라질 특급 공격수 히사롤리송, 프랑스 국가대표 센터백 클레망 랑글레 등 알짜 선수들을 대거 영입

했다. 이번에는 4강권 이상의 성적을 내 보겠다는 뜻으로 앞선다.

페프 가르디올라 맨시티 감독과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의 자락 대결은 올 시즌에도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인다.

‘전초전’이라 할 만한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리버풀이 맨시티에 3-1로 완승했다.

◇‘황소’ 황희찬, 두 번째 EPL 시즌 ‘2년차 징크스’를 넘어라

올버햄프턴 원더러스의 ‘황소’ 황희찬(26)은 EPL에서의 2번째 시즌을 맞는다.

황희찬은 가벼운 부상으로 프리시즌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파렌세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패네티리 득점도 올렸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5골을 넣으며 한국인 EPL 데뷔 시즌 최다골 기록을 작성한 황희찬이 ‘2년 차 징크스’ 없이 득점력을 뽐낼지 주목된다.

한편,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례적으로 11월에 열리는 탓에 EPL은 시즌 중반 긴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시즌이다.

11월 12-13일께 열리는 16라운드를 끝으로 EPL이 멈춘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의 대표선수 소집일은 14일이다. EPL은 12월 18일께 ‘박싱 데이’ 일정으로 리그를 재개한다.

/연합뉴스

## 정우영·이재성·이동경·이동준...분데스리가 내일 개막

2022-2023시즌 유럽 축구 ‘빅 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리그는 독일 분데스리가다.

국가대표 2선 자원인 정우영(23·프라이부르크), 이재성(30·마인츠), 이동경(25·샬케), 이동준(25·헤르타 베를린)이 뛰는 분데스리가는 6일 오전 3시 30분(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로 새 시즌 막을 올린다.

프라이부르크에서 4시즌째 접어드는 정우영과 마인츠에서 2번째 시즌을 맞는 이재성은 이번 시즌에도 팀에서 주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영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32경기에 출전해 5골 2도움을 기록하며 프라이부르크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대표팀의 6월 A매치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생애 첫 월드컵 본선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를 6위로 마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도 나설 예정이라 정우영에게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뽐낼 기회가 생겼다.

유럽 1부리그에서의 첫해 정규리그 27경기를 포함해 공식전 30경기에서 나서서 4골 3도움을 남기며 안정적인 이재성은 지난 시즌 막판 무릎 부상으로 우려를 낳았다. 6월 A매치에도 나서지 못했다.

그는 이번 시즌 마인츠의 첫 공식 경기인 1월 3부 에르츠게비르게 아우에와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 65분을 뛰며 견제함을 알렸다.

K리그 울산현대에서 함께 뛰다 올해 겨울 이적시장에서 나란히 독일로 진출한 이동경과 이동준은 팀 내에서 존재감을 키워야 하는 처지다. /연합뉴스

## 광주FC, 1위 독주 체제 굳히기 나선다

K리그2 충남아산FC 상대

7일 오후 31라운드 원정경기

광주FC가 3연승으로 1위 독주 체제를 굳힌다.

K리그2 1위 광주는 오는 7일 오후 7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충남아산FC를 상대로 3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거침 없는 질주다.

지난주 부산 원정에 이어 대전과 홈경기를 연달아 치렀던 광주는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광주는 부산 적지에서 아론과 허울의 골로 2-0 승리를 거둔 데 이어 대전과 치열한 접전 끝에 헤이스의 골로 1-0 연승을 이뤘다.

특히 대전과의 경기는 1·2위 팀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면서 3326명이라는 홈 최다관중도 기록했다. 이 승리로 승점 3점을 더하면서 독주체제를 굳힌 광주는 ‘조기 우승’을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30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광주(승점 58)에 패를 기록한 대전(승점 44)은 4위로 내려앉았다. 부천FC가 승점 47로 2위가 됐고, FC안양이 승점 45로 그 뒤를 쫓고 있다. 2위와 승점 11점 차 1위 독주다.

최근 6경기에서 3승 3무의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광주는 앞선 대전전에서 헤이스의 득점포까지 재가동되면 힘을 얻는다.

지난 라운드 선발로 나선 헤이스는 산드로와 함께 경기 내내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 그리고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 골문을 겨냥했다. 그리고 산드로의 도움을 받은 헤이스가 노스틀 슈팅으로 시즌 9호골을 만들면서 팀 승리를 합작했다.

중원에서는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이순민

과 정호연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안영규·박한빈·아론의 스리백은 상대 공세를 막으면서 승리를 지키고 있다.

골키퍼 김경민은 환상적인 슈퍼세이브로 대전전 무실점 승리를 완성하면서 안영규와 함께 30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다.

충남아산은 화려한 스쿼드와 끈끈한 조직력 그리고 탄탄한 수비가 돋보인다.

현재 승점 39점으로 5위. 특히 13골로 리그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린 유강현과 김강국, 송승민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광주는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1점 차 승리(2-1, 3-2)를 기록했다.

물론 외국인 선수들을 앞세운 광주가 안영규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압박 또 빠른 역습으로 충남아산을 상대로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0위에 처져있는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13경기 연속 무승 고리 끊기에 나선다.

전남은 8일 오후 월요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31라운드 경기를 벌인다.

앞선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0-3패를 기록하는 등 전남은 13경기 연속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난 대결에서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전남이 주도했다. 64%의 볼 점유율을 보인 전남은 19개 슈팅을 날리면서 이중 11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시즌 중반 지휘봉을 잡은 이장관 감독도 6무 3패로 K리그 데뷔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골 결정력’이라는 숙제를 안은 전남이 세밀함으로 무승 고리를 끊고 안방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골프 개막

박한경이 4일 제주 엘리시안제주CC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의 1라운드 14번 홀에서 우드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프사이드’ 심판보다 카메라가 먼저 판정한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UEFA 챔스 등에 적용

심판의 눈에 앞서 카메라가 먼저 오프사이드 여부를 가려내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AOT·Semi-Automated Offside Technology)이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등에도 도입된다.

UEFA는 3일(이하 현지시간)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오는 10일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의 2022 UEFA 슈퍼컵 경기에서 유럽 클럽대항전 사상 처음 선보일 것”이라며 “또한 SAOT는 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의 조별리그에도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스포츠연구소, 스위스 취리히공대 등이 지난 3년간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진 SAOT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오는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사용하기로 한 기술이다.

논란이 많은 오프사이드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최첨단 카메라 트래킹 기술과 인체 모션 인식 기술의 힘을 빌렸다.

경기장에 설치된 추적 카메라가 공과 모든 선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오프사이드 상황이 전개되면 곧바로 비디오판독심판(VAR)실에 알리게 된다. 추적 카메라는 각 선수의 관절 움직임을 29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나눠 인식하고, 공

에 장착된 센서는 초당 500회 빈도로 공의 움직임을 VAR실로 전송한다.

SAOT의 ‘경보’는 먼저 VAR 심판이 확인한 뒤 오프사이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그라운드의 주심에 전달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SAOT는 오프사이드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판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로베르토 로세티 UEFA 심판위원장은 “UEFA는 경기를 개선하고 심판 업무를 지원할 새 기술을 끊임없이 찾아왔다”면서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VAR 팀이 오프사이드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 흐름 및 판정의 일관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UEFA는 SAOT를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전 경기를 포함해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본선 등에서 2020년부터 총 188차례 테스트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